『中國學』第66輯 (2019.03)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9.66.66.3
pp.043-059 ISSN : 1229-9618

# 일본에서 현대 중국의 인명과 지명을 표기하는 방식에 대한 고찰*

## — 동아시아문명의 공통자산으로서 한자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신웅철**

【목 차】

1. 들어가며
2. 한자음 방식과 현지음 방식의 비교
   1) 한국과 일본의 중국 고유명사 표기
   2) 한자음 방식과 현지음 방식의 장단점
3. 음성언어를 초월하는 언어기호로서 한자의 역할
   1) 일본어의 중층적인 한자 독음
   2) 일본어에서 시니피앙으로서 갖는 한자의 기능
   3) 동아시아 한자문명의 연결고리로서의 한자
4. 근대 이후 일본의 중국 고유명사 표기 방식
   1) 근대 일본 정부의 방침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어개혁과의 상관성
   3) 일본 주요언론의 방침
5. 나오며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중국 지명과 인명을 어떻게 표기하고 읽는지에 대해서 한자문명의 공통자산으로서 한자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먼저 일본어 안에는 음성언어가 한자를 중심으로 한 문자언어와 상호보완적인 의존관계에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한자가 일본어 안에서 시니피앙(signifiant)으로서 갖는 위상과 기능을 검토하고 그것이 중국 고유명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2043693).
또한 이 논문은 2018년 12월 8일 한양대학교(안산)에서 개최된 “한국어의 정체성 보존을 위한 연합학술회의: 언어와 문자, 그리고 소프트파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HK연구교수 (shin.wngchL@gmail.com)

사를 어떻게 적고 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와 직결됨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근대 이후 일본에서 중국의 인명과 지명을 어떻게 표기하였으며 그것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하는 역사적 경위를 살펴본다. 또한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안의 서로 다른 언어권 간에 지명과 인명을 차용할 때에 한자음을 취할 것인가 현지음을 취할 것인가라는 문제의 성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본다.

【키워드】 동아시아 한자문명, 고유명사, 중국지명, 중국인명, 한자음, 현지음, 문자형태소

# 1. 들어가며

한국과 일본은 중국 문명의 지대한 영향 아래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근대 이후 기존의 중국 문명이 점하던 위상을 서구 문명이 대체하게 되었지만, 새로운 문명의 수용은 천년 넘는 세월 동안 중국 문명으로부터 받아들여 내재화한 언어적, 사유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자는 그러한 수단의 핵심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언어와 문화는 공히 한자를 근간으로 하여 발전 또는 형성되어 왔다. 특히 어휘체계의 큰 부분을 한자를 근간으로 형성된 단어(한자어)가 점하고 있다는 점은 두 언어 사이의 공통된 특징이다.[1] 그러나 근현대사의 격변을 거치면서 두 언어에서 한자가 갖는 위상에는 커다란 차이가 생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한자를 폐지하고 한글전용으로의 전면적 선회를 통해 일대 변화를 경험하였다. 표기수단으로서의 한자폐지는 언어순화와 병행되었고 필연적으로 한국어 어휘 안에서 한자어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반면 일본어에서는 복잡한 전제지식을 요구하는 전통적 한자가나혼용문의 틀을 유지하였다. 한자어(음독어)뿐 아니라 고유어에 대해서도 한자를 통한 표기가 이루어지며, 개개의 단어를 어떻게 적고 어떻게 읽을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복잡한 사전 지식이 요구되어 일견 근대적 국민교육에 적용하기에는 학습부담이 과도한 표기체계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표기체계의 틀을 유지한 채로 한자의 다양한 독음(음, 훈)을 단순화하고 제한하여 학습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하였다.

한자를 문명자산으로 공유하는 '동아시아 한자문명'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서로 이질적인 유형의 언어권으로 구성된다. 그런 가운데 이들을 하나의 문명으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각 언어권 간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한자'가 기능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 가운

1) 한국어 어휘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적게는 50%에서 70% 이상까지 추산된다. 국립국어원의 연구보고서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1』(2002)과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2005)를 기본 자료로 삼은 조사를 통해 한자어의 점유율은 대상 어휘의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허철, 「『現代國語使用頻度調査 1,2』를 통해 본 漢字語의 비중 및 漢字의 활용도 조사」, 『한문교육연구』, 34,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6, pp.230-232.). 한편 小学館의 『新選国語辞典』 第9版에 수록된 단어는 고유어(和語), 한자어(漢語), 외래어, 혼종어로 분류되어 있으며, 수록된 일반어 총 76,536 단어는 고유어 33.2%(26,365단어), 한자어 49.4%(37,834단어), 외래어 9.0%(6,886단어), 혼종어 8.4%(6,451단어)의 비율로 구성된다.

데 일본어는 중국어를 제외하면 자국어의 일상적 표기에 한자를 적용하는 사실상 유일한 하위 언어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자문명 안에서 독자성과 특수성이 두드러지는 문화권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현대 중국 고유명사를 어떻게 표기하고 읽는지를 살펴보고, 중국어권과 일본어권을 잇는 매개체로서 한자가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분석 고찰한다. 그것을 통해 동아시아 한자문명의 문명자산으로서 한자가 갖는 위상의 실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 2. 한자음 방식과 현지음 방식의 비교

### 1) 한국과 일본의 중국 고유명사 표기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표기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언어생활 전반에서 한자가 갖는 위상에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언어권에서 중국의 인명 및 지명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하는 사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중국의 정치가 毛澤東에 대해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과 일본 小學館의 『日本國語大辭典』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마오-쩌둥(Mao Zedong[毛澤東]) 중국의 정치가(1893~1976). 1921년 상하이(上海)에서 공산당을 창당할 때에 후난성(湖南省) 대표로 참가하였으며, 제일 차 국공 합작 때 국민당 중앙 선전부장 대리로 활약하다가 분열 후 후난성에서 추수 폭동(秋收暴動)을 지휘하였다. 1949년 공산 정권 수립과 동시에 초대 국가 주석에 취임한 후 1959년에 사임하고 당 주석(主席)을 전임하였으며, 1965년 이후 문화 혁명을 지도하였다. 저서에 ≪신민주주의론≫, ≪연합 정부론≫ 따위가 있다.

(2)もうたくとう【毛沢東】 中国の政治家、思想家。湖南省出身。一九二一年、中国共産党創立大会に湖南省責任者として出席。第一次国共合作中から農民運動を指導し、二八年、朱徳とともに工農紅軍第四軍を組織する。三一年、中華ソビエト共和国臨時政府主席。四九年、中華人民共和国成立とともに国家主席となるが、大躍進政策の失敗で、五九年、退く。六五年以降、文化大革命を起こし、後年その誤りを指摘された。著「実践論」「矛盾論」など。 (一八九三～一九七六)

『표준국어대사전』에는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오쩌둥'을 기본 표제어로 세우고 빈 표제어 '모택동'을 두어 '마오쩌둥'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지음에 따른 것을 기본 표제어로 삼되 한국한자음에 따른 표기는 빈 표제어로 등재한 것이다.[2] 한편 『日本國語大辭典』에는

2) 현지음과 한자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논의해 가기로 한다.
한자음 - 이전 시대 특정지역의 중국어음이 일본어 음운체계에 맞춰 변형/계승된 것.
한자에 딸린 속성 가운데 하나로서 파악.

이와는 정반대로 일본 한자음에 따른 ‘もうたくとう(모타쿠토)’를 기본 표제어로 삼고 현지음에 따른 독음은 빈 표제어로 싣고 있다.

다음의 (3)(4)를 보면 인명뿐만 아니라 지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침이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3)청두02(Chengdu[成都]) 중국 쓰촨(四川) 분지 서부에 있는 도시. 중국 서남부 교통의 요충지로 삼국 시대 촉한의 도읍이었다. 쓰촨성(四川省)의 성도(省都)이다.

(4)せいと【成都】 中国、四川省の省都。四川盆地西部に位置し、中国南西部の交通の要衝を占める。三国時代の蜀漢の都以来、しばしば独立政権の根拠地となった。蜀錦（しょくきん）と呼ばれる絹織物でも知られる。

위에 열거한 예시만 보면 일본어에서는 중국의 인명과 지명은 한자음 독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北京의 예를 보면『日本國語大辭典』쪽의 방침이 꼭 일본 한자음만을 고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베이징(Beijing[北京]) 중국 화베이(華北) 평원의 북부에 있는 도시. 중국 역대의 수도로 쯔진청(紫禁城), 톈안먼(天安門) 따위의 사적과 명승지가 많으며 철강, 기계, 직물, 식품 따위의 공업도 발달하였다. ‘중국「2」’의 수도이다.

(6)ペキン【北京】 中華人民共和国の首都。華北平原の北部にある。遼の副都南京、金の中都燕京、元の首都大都を経て、明・清時代に北京と呼ばれた。一九二八年中華民国の南京遷都により北平（ペーピン）と称し、四九年再び北京に改称。明・清の皇城の紫禁城を中心に内城、その南側に外城があり、碁盤目の街路で区切られている。ペイチン。

현대 북경음을 바탕으로 한 (5)와는 다소 이질적이지만 (6)의 ペキン(페킨)은 분명 일본 한자음에 준거하여 읽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3][4]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Peking과 상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중국의 인명, 지명 표기에 관해서 한국어에서는 현지음 준거라는 일관된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일본 한자음을 우선하되 일부 국제적인 관용에 준거한 표기를 취한 사례가 혼재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현지음 – 당대의 특정지역(또는 표준적) 중국어음을 일본어 음운체계에 맞춘 것.
외래어의 음가로 인식될 뿐 한자에 딸린 속성으로는 파악하지 않음.

3) 北京을 ペキン(페킨)으로 읽는 것을 가리켜 일본 한자음의 일종인 唐音으로 읽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吳音과 漢音이 거의 모든 한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되는 일본 한자음의 전형적인 형태로 간주할 수 있는 것에 반해, 唐音은 비체계적으로 몇몇 한자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나타나며 현대 중국어 현지음과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하 본고에서 ‘일본 한자음’으로 일컫는 것은 吳音, 漢音만을 포함하기로 하며 唐音은 배제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일본 한자음과 관련해서는 뒤에 자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4) 한편『日本國語大辭典』에는 北京을 일본 한자음으로 읽은 표제어도 존재한다. 다만 그 의미는 중국의 지명이 아니라 교토의 별칭으로서 기술되어 있다. “ほっきょう【北京】京都の別称。奈良を南京と呼ぶのに対していう。北都。”

한국어에서 중국의 인명과 지명과 관련한 어문규범으로는「외래어 표기법」제4장 제2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의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을 들 수 있다.[5)]

제1항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2항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4항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한편 일본어에서 현재 국가기관에 의해 시행 중인 어문규범 가운데 중국의 인명, 지명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한일 양국의 언어시책 방향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일본은 국가기관에서 어문규범을 세세히 명문화하는 일이 한국에 비해 적은 경향을 띤다. 정부 차원의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일본에서는 민간 차원의 규범 또는 관용적 규범이 존재한다. 앞서 열거한 예를 보건대 일본에서는 중국의 고유명사를 한자로 표기하고 일본 한자음으로 읽는 방식을 대체로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현지음 발음을 한글로 적는 한국의 실정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한자음 방식과 현지음 방식의 장단점

일본 한자음으로 읽었을 때의 문제점으로는 국제적인 소통에서 소외된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일본 이외에 대부분의 언어권에서는 중국의 인명과 지명은 한어병음으로 표기하거나 현지음 독음에 최대한 가깝게 적고 있다. 그로 인해 동일한 대상(인명, 지명)에 대해 상당히 괴리된 음상으로 지칭하게 되는 데에서 오는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다. 가령 胡錦濤를 Hu Jintao라고 읽는 데에서 유래한 "Who is Hu?"와 같은 말장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들 수 있겠다.[6)]

실제로 1930년 즈음의 런던에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국의 상황을 전하는 영어 뉴스를 접한 일본인들이 등장하는 인명과 지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는데,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외무성 서기관이 시국과 관련 있는 주요 지명 및 인명에 대해서 '영문-일본 한자음-한자' 대조표를 만들어 배포했다는 일화가 있다.[7)]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일본 국내의 상황에 한정했을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큰 문제라고 하기 어렵다. 설령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가 실제 발생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의 보급 등을 통해 정보 접근성 자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의 인명, 혹은 생소한 지명을 읽을 시에 어떤 한자음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산발적으로 대응하는 당음은 차치하고서라도 거의 모든 글자에 대응하는 오음과 한음 가

5) 문교부 고시 제85-11호(1986.01.07.)
6) 藤野彰,「中国人名の現地読み――メディアの現状と課題」,『東方』, 366, 東方書店, 2011.08, p.5.
7) 宮地貫道,「日支同文ノ禍」,『カナノヒカリ』, 120, カナモジカイ, 1931.12.

운데 어느 것을 취할 것이냐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한음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

또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지명의 경우 일상적으로 빈번히 쓰이는 단어와 동음이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도쿄 하네다 공항과 上海의 虹橋공항 사이의 항로가 개설될 때에 虹橋를 일본 한자음으로 읽게 될 경우 公共과 동음이 되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는 현지음에 따라 ホンチャオ로 적기로 하였다.[8]

현지음으로 읽었을 때의 문제점으로는 우선은 상호주의적인 관점에서의 불균형이 지적된다. 한국의 경우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즈음하여 한국정부로부터 한국 인명과 지명에 대해서 일본 한자음으로 읽어 오던 관행을 대신하여 현대 한국어 발음(현지음)을 기준으로 읽어 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다. 한국 측에서도 일본의 고유명사를 현대 일본어 발음(현지음)에 따라 읽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상호주의적인 차원에서 문제삼을 것이 없었다. 이후 한국 인명 및 지명에 관해서는 현지음 독음으로 무리 없이 정착되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1972년 일본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이래로 각각 자국의 방식으로 상대국의 고유명사를 읽는 것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이의제기나 수정요청은 없다. 또한 설령 일본에서 중국 고유명사를 현지음으로 적고 읽더라도, 중국에서는 일본의 고유명사에 대해서 같은 방침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상호주의적인 관점에서의 불균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중국 정부 스스로가 이러한 측면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에 구태여 일본에 현지음 방식을 요청하거나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소수민족 지역의 지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본래 소수민족 언어로 명명된 지명을 한자로 음역한 2차적인 지명을 그대로 현대 북경음으로 읽는 것을 '현지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가령 내몽골자치구의 중심도시인 呼和浩特는 몽골어 'Höh hot'를 한자로 옮겨 적은 것인데, 이 2차적인 한자표기에 대응하는 현대 북경음 Hūhéhàotè와 본래의 몽골어 'Höh hot' 가운데 어느 것을 현지음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9] 일본에서는 일본 한자음으로 읽는 방침을 취하더라도 소수민족 지명에 대해서는 소수민족의 원어에 따라 읽는 것이 지배적이다. 다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지명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소수민족 원어에서 유래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뒤따른다.

## 3. 음성언어를 초월하는 언어기호로서 한자의 역할

### 1) 일본어의 중층적인 한자 독음

8) 放送用語委員会(東京), 「中国の地名 · 人名についての再確認」, 『放送研究と調査』, 2008(3), 日本放送出版協会, 2008.03, p.102.

9) 일본에서는 소수민족 원어(몽골어) 명칭에 따라 フフホト(후흐호트)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어를 표기하는 문자로서 한자운용에서 특징적인 것으로는 독음의 다양성이 지적된다. 한자음만 해도 전래된 발음의 지역적 시대적 차이에 따라 오음, 한음, 당음으로 구분되는 중층적인 체계[10]가 형성되어 있다. 한국과 베트남 등에서 한자음 체계가 단층적으로 형성되었던 것과 크게 대비되는 특징이다. 한편 여기에 더해서 한자가 가지는 의미적 속성을 매개로 연결된 일본 고유어인 "훈"도 일종의 독음으로 규정할 수 있다.[11] 아래 <표1>은 일본의 복잡한 한자 독음을 예시한 것이다.

<표1> 일본의 한자 독음의 중층적 구조

| | 音 | | | 訓 |
|---|---|---|---|---|
| | 吳音 | 漢音 | 唐音 | |
| 京 | きょう | けい | きん | みやこ |
| 行 | ぎょう | こう | あん | おこなう / ゆく |
| 清 | しょう | せい | しん | きよい |

고유어인 훈은 차치하고 한자와 함께 중국에서 딸려 들어온 한자음은 수용 당초에는 "현지음", 즉 일종의 외래어, 외래음으로서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일본어의 음운체계에 녹아들고 풍화되어[12] "한자음"으로 정착된 것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수용시기가 가까운 당음의 경우에는 근대 이후에 수용되어 "한자음"으로서 인정되지 못하는 중국음과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다.[13] 단순화해서 이야기하자면, 한자음이냐 외래음이냐의 구분은 그것이 특정 한자의 속성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개개의 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다는 일본어에서의 한자운용 상의 특징은 문자언어와 음성언어 간에 상호보완적인 밀착으로 귀결되었다. 근대 이후에도 한자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근원적인 이유는 이러한 밀착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그것이 동아시아 한자문명의 다른 국가 지명 및 인명을 수용함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2) 일본어에서 시니피앙으로서 갖는 한자의 기능

10) 일본 한자음의 계층은 크게 오음, 한음, 당음로 대표된다. 오음은 5~6세기 무렵에 한반도 등을 경유하여 전래된 것으로서 주로 사찰에서 불경의 독송을 중심으로 전승되었다. 한음은 7~9세기에 이르는 기간동안 중국(당)에 직접 파견되었던 사절단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식된 중국 장안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한자음이다. 당음은 중세(13~16세기) 및 근세(17~19세기)에 걸쳐 송, 원, 명, 청 시대의 발음이 구체적 사물의 명칭으로서 유입된 것이다. 많은 수의 한자는 오음과 한음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나 당음까지 갖춘 글자는 한정적이다.

11) 일본어 표기에서의 한자의 훈은 개개의 한자와 고정적인 대응관계를 갖는 것으로 정착되어 있다. 따라서 한자음과 마찬가지로 그 한자를 소리 내어 읽는 방식(독음)의 일종으로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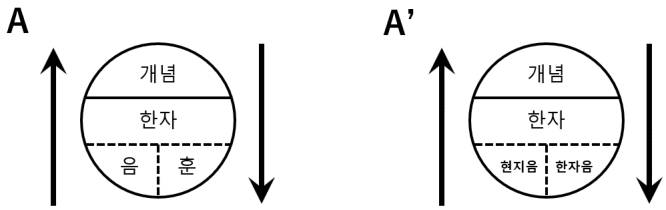
12) 이들 한자음은 일본어의 통시적인 음운변화 또한 함께 겪었다. [표1]에서 京-きょう/kyo:/, 行-ぎょう/gyo:/, 行-こう/ko:/, 清-しょう/syo:/는 본래 きゃう/kyau/, ぎゃう/gyau/, かう/kau/, しゃう/syau/로 발음되던 것인데 일본어에서 일어난 음운변화를 거치면서 현재와 같은 발음이 된 것이다.

13) 가령 北京에 대응하는 ペキン, 上海에 대응하는 シャンハイ를 당음으로 간주할 것인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京의 당음으로 キン이 등재된 사전은 흔히 볼 수 있지만, 北-ペ, 上-シャン, 海-ハイ를 당음으로 간주하여 싣는 사전은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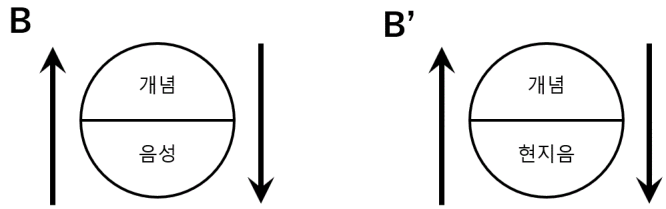
소쉬르가 언어기호를 시니피에(signifie, 所記)와 시니피앙(signifiant, 能記)의 결합체로 설명하고 있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時枝誠記(1957)은 표음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서구 언어에서 음성언어를 가장 순수한 시니피앙으로 파악하고 문자는 그것에 뒤따르는 산물로 보는 관점이 표의문자를 바탕으로 하는 일본어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움을 지적한다.[14]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森岡健二(1991)은 일본어에 있어서 "문자는 언어의 한 요소이며 시니피앙의 기능을 수행하며 일종의 형태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가설을 세우고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증명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 오늘날 일본어의 어휘체계는 한자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으며 라틴문자로 표기하는 사전을 편찬하고자 할지라도 표제어에 한자를 부기하지 않고서는 사전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 즉 일본어의 어휘는 한자 없이는 의미 식별이 불가능하며 이것은 문자가 언어기호인 '시니피앙'으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5]

이와 같은 지적은 일본어뿐만 아니라 문화자산으로서 한자를 공유하는 동아시아 문명의 각 언어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다. 한편 '개념'(의미, 義)과 '음성'(청각영상,音) 및 '한자'(시각영상, 形)의 결합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를 발췌하여 들면 다음 <그림1>과 <그림2>의 A, B와 같다.[16]




<그림1> 개념과 음성의 결합 – 문자형태소의 이형태로서




<그림2> 개념과 음성의 결합 - 문자형태소 개념을 개재하지 않음

14) 時枝誠記,『国語学への道』, 三省堂, 1957, p.49.
15) 森岡健二,『改訂 近代語の成立: 語彙編』, 明治書院, 1991, p.309.
16) 森岡健二,『改訂 近代語の成立: 語彙編』, 明治書院, 1991, p.317.

<그림1>의 A는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大阪(오사카)를 축약할 때 阪(한)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한자의 음과 훈이 자유롭게 전환하는 현상을 들어 그것을 도식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즉 음성만으로 보았을 때 /사카/와 /한/은 아무런 개연성을 찾을 수 없지만, 阪이라는 '문자형태소'의 이형태(allomorph)로서 연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을 한자문화권의 지명과 인명으로 확장시켜 응용하면 A'에 나타낸 것과 같이 중국 현지음과 각국의 한자음의 관계 또한 동일 '문자형태소'의 이형태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그림2>의 B는 이러한 '문자형태소'와 무관하게 '개념'과 '음성'의 양자 결합관계로만 파악되는 것을 도식화한 것이다. 중국의 특정 지역을 나타내는 명칭에 대해서 '문자형태소'를 인정 혹은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구도와 같다고 파악하여 B'와 같은 도식으로 응용하여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일본어의 표기 및 형태소 식별에 표의문자인 한자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鈴木孝夫(1990)은 이렇듯 청각정보와 함께 표의문자를 통한 시각정보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일본어를 가리켜 '텔레비전형 언어'라고 지칭하였다. 반면 표음문자에 의해서 온전히 표기되는 대다수 서구 언어들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의 정보의존이 청각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라디오형 언어'라고 비유하였다.[17]

한자문화권의 다른 언어권의 고유명사의 독음에 대해서 현지음에 따를 것이냐 자국의 한자음에 따를 것이냐는 문제는, 결국 대상물을 식별하는 언어기호(시니피앙)인 '음성'과 '문자'의 기능 및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어떠한 장소를 지칭하는 언어기호로서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음성'을 핵심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과 대응하는 '문자'에 대해서는 음성의 부수적 산물로 파악하였을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지칭하는 언어기호를 한국어로 들여옴에 있어서도 '음성'에 중점을 두고 현지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당위로 귀결될 것이다. 반면 대상물을 지칭하는 언어기호로서 '문자'를 핵심적으로 파악한다면 '문자'의 속성으로서 이미 한국어 안에 정착 통용되는 요소로 존재하는 '음성'인 한국한자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듯 현지음이냐 한자음이냐 하는 문제의 근원적인 발단은 해당 대상물과 결합하여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어의 경우에는 표기의 측면에서 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문자'에 대한 취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3) 동아시아 한자문명의 연결고리로서의 한자

외국의 인명과 지명 또한 일종의 차용어로 간주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沈国威(2014)는 차용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차용어는 그 형성 방식과 의미실현의 특징에 따라서 차음어(借音語)와 차형어(借形語)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외국어 발음을 음전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국어로 편입시키는 것으로서

17) 鈴木孝夫,『日本語と外国語(鈴木孝夫著作集5)』, 岩波書店, 1990, p.180.

일반적으로는 음역어라고도 한다. 후자는 동일한 표기체계를 갖는 언어, 가령 유럽의 여러 언어 간에 자주 관찰된다. 일본어와 중국어 사이에서는 어휘의 이동과 교류가 한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발음은 체계적으로 고대 중국어와 대응하지만 차용될 때에 단어의 발음보다 표기상의 자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차용어들도 차형어라고 할 수 있다.[18]

'借形'이라는 용어에서 '形'이 지칭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문자형태소'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일반명사로서 차용된 단어들의 경우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물의 속성 의미와 형태상의 변용까지 가할 수 있는 반면, 인명과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그것이 지니는 속성상 수용 언어에 내재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고 그러한 이질성은 어휘체계 내에서 적지 않은 부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듯 내재화가 어려운 고유명사의 특성은 현지음에 기반한 외래음적 음상으로 받아들이는 음역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한자라는 공통의 문화적 자산을 공유하지 않는 언어권의 고유명사에 대해서는 음역 이외의 수용 방식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동아시아 한자문명권의 고유명사에 대해서는 한자라고 하는 공통의 자산을 경유한 수용방식을 통해 이질성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동아시아 한자문명을 구성하는 각 언어권 간에 공통의 연결고리가 상존함을 의미하며 한자문명을 하나의 권역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특징일 것이다.

재일교포 중국문학 연구자 김문경 씨는 이와나미 서점에서 발행하는 저명한 어문학 대중잡지 『文学』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근래 일본에서도 현지음을 존중하는 이러한 한국방식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어서 한국의 지명, 인명에 대해서는 한국발음 가타카나 표기가 정착한 감이 있다. 배용준을 "ペヨンジュン"이 아니라 일본 한자음으로 "ハイユウシュン"으로 읽어서는 욘사마가 되지 않는다. 이미 되돌아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상호양해가 존자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ルーシュン(魯迅), シーアン(西安) 등 중국음 표기를 보게 되는 일이 이제 결코 드물지 않게 되었다. 특히 글로벌화를 지지하는 식자들 사이에서는 한국방식은 좋은 평가를 받는 모양이다. 가령 필자를 キム(한국발음) 씨라고 부르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고 キン(일본 한자음)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한국에서는 필자가 일본에서 제 이름을 キン(일본 한자음)으로 호칭하고 있다고 하면 민족적 자각이 부족한 인간이 되고 만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일까? 현지음 존중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한자가 동아시아에 전파되기 이전인 고대, 일본으로 치자면 그 옛날 야마태국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야마태국 시절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세계에서 면면히 구축되어 온 양해사항들을 글로벌화 앞에서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19]

일본에서 중국과 한국의 고유명사 독음을 다루는 방식은 기존의 일본 한자음 위주에서 현지음 중심으로 서서히 옮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단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저자 자신의 입장은 그러한 최근의 추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은 것으로 읽힌다. 또한 그러한 변화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형성 및 계승도 직결되는 공통의 양해사항, 즉 한자는 각국의 고유한

18) 沈国威, 「借用語」, 『日本語大事典』, 朝倉書店, 2014, p.1009.
19) 金文京, 「言語資源としての漢字 · 漢文——日本と韓国の比較」, 『文学』, 12(3), 岩波書店, 2011.5, p.50.

한자음으로 읽는다는 약속이 붕괴되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한 '공통의 양해사항'이라는 것의 실질은 앞서 언급한 '문자형태소'와 '차형'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동아시아 한자문명을 하나의 문명권역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라 할 수 있는 요소이다. 위의 김문경 씨의 글의 내용대로라면 일본에서조차 그러한 연결고리가 점차 옅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일본에서 중국의 인명과 지명이 표기되어 온 역사적 경위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 4. 근대 이후 일본의 중국 고유명사 표기 방식

### 1) 근대 일본 정부의 방침

중국 고유명사의 표기와 독음에 대해서 1902년 11월의 문부성 답신에서 "중국/조선의 경우는 종래의 한자표기-일본어음독의 관행을 취한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1936~1937년에는 문부성 산하 방송용어 및 발음 개선조사위원회의 결정에서 같은 취지의 내용을 재확인하였다.[20]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주요 언론사들[21]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 중국 고유명사에 대해서 한자 표기를 배제하고 현지음 독음을 가타카나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안을 획정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좇아 문부성 산하 국어심의회에서 1948년 11월부터 관련된 심의를 시작하였고 최종적으로 1949년 7월 30일자로 「중국 지명 · 인명의 표기법」에 관한 건의를 문부대신에게 올렸다. 위 건의의 별책 「중국 지명 · 인명의 표기법 표」의 첫머리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1. 중국의 지명 · 인명은 가나 표기를 하기로 한다.
2. 중국의 지명 · 인명의 가나 표기는 원칙적으로 현대 중국 표준음에 따른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 이 표는 중국의 지명 · 인명을 가나 표기할 경우에 사용하는 중국 표준음의 표기법을 나타낸 것이다.
2. 사성의 구별, 어두의 유기 · 무기의 구별, 어미의 n과 ng의 구별 등은 나누어 적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청음 · 탁음 가나로써 유기 · 무기의 구별을 나누어 적어도 무방하다.
3. 다음 지명은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호칭에 따른다.
   アモイ(厦門), スワトウ(汕頭), カオルン(九竜), ナンキン(南京), カントン(広東), ホンコン(香港), シェンシー(陝西), マカオ(澳門)

---

20) 放送用語委員会(東京), 「中国の地名 · 人名についての再確認」, 『放送研究と調査』, 2008(3), 日本放送出版協会, 2008.3. p.101.

21) 일본방송협회(NHK), 요미우리 신문사, 마이니치 신문사, 아사히 신문사, 교도 통신사.

4. 이 표는 주로 민국 이후의 것에 적용한다.
5. 이 표의 실시에 즈음하여 당분간 한자를 함께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6. 만주 · 몽고, 그밖에 변경지역의 원어명을 한자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요약하자면, 표기의 측면에서 한자를 배제하고(한자 병기는 당분간 허용), 형태의 측면에서 현지음(현대 중국 표준음)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일부 지명에 대해서는 현대 중국 표준음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발음에 따랐으며, 시대적으로는 민국성립(1912년) 이후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만주와 몽고 등 소수민족 지역의 지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것은 [표기: 한자표기, 독음: 일본 한자음] 방식이라는 기존의 관습을 전면적으로 뒤엎는 전환이었다.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의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연합군의 통치 아래에서 단행된 국어개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어개혁과의 상관성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서구문명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본에서는 국어개혁을 주창하는 움직임들이 꾸준히 있어 왔다. 극단적으로는 일본어가 아닌 서구 언어를 국어로 삼자는 주장마저 제기된 바 있었고,[22] 표기와 문체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표기의 측면에서는 특히 표의문자인 한자를 폐지하고 표음문자(가나 또는 라틴문자)만으로 일본어를 적도록 하자는 혁신적인 주장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정한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주장은 결론적으로는 대중적인 공감대 형성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정부의 언어시책은 일본어를 국어로 하고 한자와 가나를 혼용하는 전통적인 체제를 계승하는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점진적인 국어개혁을 위한 준비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1922년에는 문부성 산하 임시국어조사회(국어심의회의 전신)가 상용한자 1962자를 선정하였고, 이듬해 1923년에는 같은 조사회가 가나맞춤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20여년 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도 이러한 개혁은 시행되지 못하였다. 일본정부의 언어시책이 얼마나 신중하고 보수적이었는가를 짐작게 한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일본 전토는 연합군최고사령부(GHQ)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GHQ는 일본이라는 국가와 사회를 전면적으로 개조하고자 했다. 그러한 GHQ의 요청으로 파견된 미국교육사절단의 제1차 보고서(1946년 3월)에서 국어개혁은 주요한 항목이었다. 보고서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혼용하는 일본어의 복잡한 표기체계를 일본사회의 비민주성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지적하고, 라틴문자를 통한 단순한 표기체계로 이행할

22) 초대 문부대신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1847-1889)는 개인적인 견해로 일본의 국어로서 일본어가 아닌 영어를 채용하자는 주장을 한 바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는 영향력 있는 정치가인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 1858-1954)가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한편 소설가 시가 나오야(志賀直哉, 1883-1971)는 1946년에 프랑스어를 국어로 삼자는 주장을 에세이를 통해 펼쳤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당시에 이미 비난 여론에 직면하여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일본 정부 측의 국어심의회는 위원 구성에서 국어개혁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한자폐지나 전면적인 표음문자화와 같은 급진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으나 앞서 언급된 상용한자, 가나맞춤법 개정안 을 바탕으로 하여 “당용한자표”[23]와 “현대 가나맞춤법”[24]이 제정되었다. “당용한자”은 일상적이지 않은 한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공용문서나 일반사회에서 사용할 한자의 범위를 명시하였다. “당용”은 “당분간 사용할”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한자제한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한자폐지임을 암시하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의 고유명사에는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생소하고 비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한자가 적지 않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한자제한을 기조로 하는 국어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돌발변수를 배제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과 한국의 고유명사의 표기에서 한자를 배제하고 원음에 따라 가타카나로 적도록 한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할 수 있다. 실제로 국어심의회의 관련 회의록을 살펴보면 “중국의 지명 · 인명의 가나 표기 방침이 통일적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당용한자표를 실시하고 보급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고유명사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언급을 통해 그러한 방향성을 읽어 볼 수 있다.[25]

## 3) 일본 주요언론의 방침

그러나 결론부터 밝히자면 중국 고유명사를 현지음에 따라 가타카나로 적는 방식(표기: 가타카나표기, 독음: 현지음)은 정착에 실패했다. 또한 주요 언론사 가운데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처음부터 [표기: 가타카나, 독음: 현지음] 방식에 따르지 않았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중국과 한국의 고유명사가 주요 기사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었고 급진적인 표기에 대한 독자들의 불만이 쇄도하였다. 결국 주요 언론사들은 기존의 [표기: 한자, 독음: 일본 한자음] 방식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앞서 언급한 국어심의회의 건의(1949년)로부터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53년을 즈음하여 주요 언론사들은 기존의 [표기: 한자, 독음: 일본 한자음] 방식으로 회귀하게 된다.[26]

오늘날 전후 국어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표기: 가타카나, 독음: 현지음] 방식의 잔재는

---

23) 1946년 11월 16일 내각고시 제32호. 한자의 형태와 자수를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음과 훈까지 제한하는 후속조치가 이어졌다.

24) 1946년 11월 16일 내각고시 제33호. 이것의 시행을 규정한 내각훈령 제8호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국어를 적음에 있어서 종래의 가나 맞춤법은 심히 복잡하여 사용상의 어려움이 크다. 이것을 현대어음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것은 교육 부담을 가볍게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능률을 높이고 문화수준 향상에 보탬되는 바가 크다. (후략)”
종래의 가나 맞춤법은 10세기 중반의 일본어 음운체계를 기준으로 하는 표기체계로서 현대 일본어의 음운과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었다. 입말에서 동일하게 발음되는 것을 표기상에서 인위적으로 구분해야 했기 때문에 교육상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25) 「外国(中国)地名 · 人名書き方に関する主査委員会」(국어심의회 제15회 총회, 1949.03.12)

26) NHK의 경우 1953년 9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회귀를 선언하였다.

중고등학교 사회과 지리부도의 중국 지명표기에서 찾을 수 있을 뿐이다.[27] 그 이후 일본정부는 중국 고유명사 표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바가 없으며, 각 언론사 및 출판사 마다 독자적인 방침에 따라 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서 발간하는 최신 방송 가이드라인에는 중국 고유명사의 표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중국의 지명/인명 등은 원칙적으로 한자로 표기하고 일본 한자음 표기로 한다. 다만 ハルビン(哈爾浜) 등 가타카나 표기가 정착한 것은 가타카나 표기로 하고, シャンハイ(上海), チンタオ(青島) 등 원음으로 읽는 것이 정착된 것은 원음표기로 한다.[28]

관습적으로 원음으로 표기하는 몇몇 예를 제외하고는 [표기: 한자, 독음: 일본 한자음]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교도통신사, 지지통신사,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주요 언론사들의 방침도 대동소이하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의 경우 2011년 12월 26일부터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명에 한해서 한자표기에 현지음에 가까운 독음을 가타카나로 적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언론사 가운데 아사히신문은 2002년부터 [표기: 한자, 독음: 현지음]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소수민족 지명 및 중국어 이외의 언어에서 유래하는 지명의 경우 현지음(중국어 이외의 언어)을 가타카나로 표기한다.

## 5. 나오며

이상 일본에서 중국 지명과 인명을 어떻게 표기하고 읽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먼저 한자음 방식과 현지음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어서 일본어 안에서 언어기호로서 한자가 어떠한 위상과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또한 일본어에서 한자는 중층적인 독음 체계로 운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문자언어와 음성언어가 상호보완적으로 밀착될 수 있는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선행연구를 통해 일본어에서 문자언어의 핵심에 있는 한자가 여전히 시니피앙(signifiant)으로서 유효한 기능을 지니고 있음은 지적된 사실이다.

한자문화권을 구성하는 언어권 간에 고유명사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현지음과 한자음 가운데 어느 쪽에 따를 것이냐는 문제는 종종 당위의 차원에서 취급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지음이냐 한자음이냐는 문제는 근원적으로 한자를 '초음성언어적 시니피앙', 즉 음성언어를 초월하여 매개하는 시니피앙으로서 인식하느냐 여부로 귀결된다고 본다. 이러한 초음성언어적 시니피앙으로서의 기능은 동아시아 한자문명의 공통자산으로서 한자가 갖는 핵심적인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 바꾸어 말하면 동아시아 한자문명을 구성하는 각 언어권 간의 문명적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한자음 방식의 고수를 주장하는 이들의 인식 저변에는 이러한 동아시아 한자문명의 공통

---

27) 각 출판사별로 표기법이 거듭 개정되는 바람에 가타카나 표기 사이에도 통일성을 찾기 어려운 지경이다. 더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현지음 독음은 무시되고 있다.(明木茂夫, 2011; 2014)

28) 日本放送協会放送倫理委員会,『NHK放送ガイドライン2015』, 日本放送協会, 2015, p.15.

자산으로서 한자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현지음 방식으로의 이행을 주장하는 쪽의 인식 저변에는 한자의 초음성언어적 시니피앙으로서의 역할이 가용한 문명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는 태도가 있다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급진적인 국어 개혁의 기운 속에서 중국 인명과 지명 표기에 대해서 표음문자(가타카나)를 통한 현지음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했었다. 그러나 이내 그것이 사회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방식인 한자 표기 및 일본 한자음 독음으로 회귀한 경위가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현지음 방식으로의 급진적 이행이 정착할 수 없었던 데에는 초음성언어적 시니피앙으로서 한자의 위상이 확고하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수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현지음 독음이 상당수 침투하는 추세임도 확인되지만 현지음 독음으로 적을 때조차도 한자를 적고 그것에 곁들인 형태로 현지음 독음이 달리는 경우가 많다. 일본어의 경우 서서히 현지음 독음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른 언어권과 매개하는 초음성언어적 시니피앙으로서 한자의 위상은 공고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은 초음성언어적 시니피앙으로서 한자의 기능이 가져다 주는 효용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아시아 한자문명은 천년 넘는 세월 동안 한자라는 공통의 문화자산을 통해 음성언어 상의 현격한 차이를 뛰어넘어 공동의 문명을 형성해 왔다. 근대 이후 서구 문명의 침투 속에서도 각 언어권 또는 민족이 주체성을 자각하는 과정에서도 한자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하나의 문명권으로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사이 그러한 문명적 연결고리가 많이 가늘어진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한자문명을 함께 구성하는 국가 또는 언어권 간에 이루어지는 고유명사의 수용 방식을 통해 그러한 변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고유명사의 수용 방식을 고민함에 있어서 단일 언어 내부에서의 규범적 통일성과 같은 미시적인 부분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한자가 갖는 문명적 연결고리로서 갖는 거시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문자언어를 통해 음성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 소통하던 동아시아 한자문명의 전통적 문명자산이 갖는 효용을 계승한다는 관점에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허 철,「『現代國語使用頻度調査 1,2』를 통해 본 漢字語의 비중 및 漢字의 활용도 조사」,『한문교육연구』, 34,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06.

岡本佐智子, 「外国の地名表記の現状と課題――教科書および副教材における表記の「ゆれ」から」, 『北海道文教大学論集』, 19, 北海道文教大学, 2018.02.

駒井正一,「中国地名の表音法について」,『信州大学教養部紀要 第1部 人文科学』, 11, 信州大学教養部, 1977.02.

宮地貫道,「日支同文ノ禍」,『カナノヒカリ』, 120, カナモジカイ, 1931.12.

金文京,「言語資源としての漢字·漢文――日本と韓国の比較」,『文学』, 12(3), 岩波書店, 2011.05.

藤野彰,「中国人名の現地読み――メディアの現状と課題」,『東方』, 366, 東方書店, 2011.08.

明木茂夫,「社会科地図帳中国地名カタカナ現地音表記とその基準について――漢字制限論の残したもの」,『東方』, 367, 東方書店, 2011.09.

_____,「学校地図帳中国地名カタカナ表記の素性――昭和二十年代の国語審議会とマスコミの動きを巡って」,『名古屋大學中國語學文學論集』, 28, 名古屋大學中國文學研究室, 2014.12.

放送用語委員会(東京), 「中国の地名・人名についての再確認」,『放送研究と調査』, 2008(3), 日本放送出版協会, 2008.03.

森田浩一, 「グローバル化のもとで中国人の名を日本語でどう呼ぶべきか」, 『甲南女子大学研究紀要 文学·文化編』, 53, 甲南女子大学, 2017.03.

石野好一,「日本語における漢字使用のしくみについて」,『言語の普遍性と個別性』, 8, 新潟大学大学院現代社会文化研究科「言語の普遍性と個別性」プロジェクト, 2017.03.

朱一星, 「汝の名はかくして変わる――漢字人名は字本位か音本位か」, 『京都外国語大学研究論叢』, 78, 京都外国語大学国際言語平和研究所, 2012.01.

_____,「続・汝の名はかくして変わる――「表意」の神話, 「表音」の虚構」,『京都外国語大学研究論叢』, 79, 京都外国語大学国際言語平和研究所, 2012.07.

池田巧,「現代中国語のカタカナ発音表記法、あるいは文化的雪かきについて」,『東方』, 364, 東方書店, 2011.06.

金文京,『漢文と東アジア』, 岩波書店, 2010.

鈴木孝夫,『日本語と外国語(鈴木孝夫著作集5)』, 岩波書店, 1990.

森岡健二,『改訂 近代語の成立: 語彙編』, 明治書院, 1991.

時枝誠記,『国語学への道』, 三省堂, 1957.

沈国威,「借用語」,『日本語大事典』, 朝倉書店, 2014.

日本放送協会放送倫理委員会,『NHK放送ガイドライン2015』, 日本放送協会, 2015.

# 【논문초록】


| | | |
|---|---|---|
| 키워드<br>Key Words | 중문 | 东亚汉字文明, 固有名词, 中国地名, 中国人名, 汉字音, 当地音, 文字形态素 |
| | 영문 | East Asian Hanja Civilization, Proper Noun, Chinese Name of Places, Chinese Name of People,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Local Pro nunciation, Character Morpheme |


**A Study on How Names of Persons and Places of Modern China are Written in Japan : Focusing on Japan's Recognition of Chinese character as a Common Asset of East Asian Civilization**

Shin, Woong-Chul

In correlation with Japan's recognition of Chinese character as a common asset of East Asian civilization, this study focuses on investigating how names of persons and places of modern China are written and read in Japan. First, it is confirmed that the phonetic language is mutually complementary to the written one based on Chinese character. Second, the research examines the status and function of Chinese character as signifiant within Japanese, ascertaining that they are directly related to the problem of determining how to write and read Chinese proper nouns. Finally, some historical paths through which human and geographical names of China have been marked and changed in Japan since modern times are searched for. What is also considered with such an exploration is the nature of the issue of whether to take Sino-Japanese sounds or Chinese local sounds when borrowing names of persons and places from different language spheres within East Asian Hanja(Chinese character) civilization. So the issue of whether to take Sino-Japanese sounds or Chinese local sounds in accepting a Chinese noun depends not on which one is right or wrong, but on whether to recognize the Chinese charactar as a medium as a signifiant.


| | | | | |
|---|---|---|---|---|
| 저 자<br>인적사항 | 성 명 | 신웅철 / 申雄哲 / Shin, Woong-Chul | | |
| | 소 속 |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 | |
| | Em@il | shin.wngchL@gmail.com | | |



| | | | | |
|---|---|---|---|---|
| 논 문<br>작성일시 | 투 고 일 | 2019년 02월 20일 | 심 사 일 | 2019년 02월 21일 |
| | 수 정 일 | 2019년 03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19년 03월 22일 |